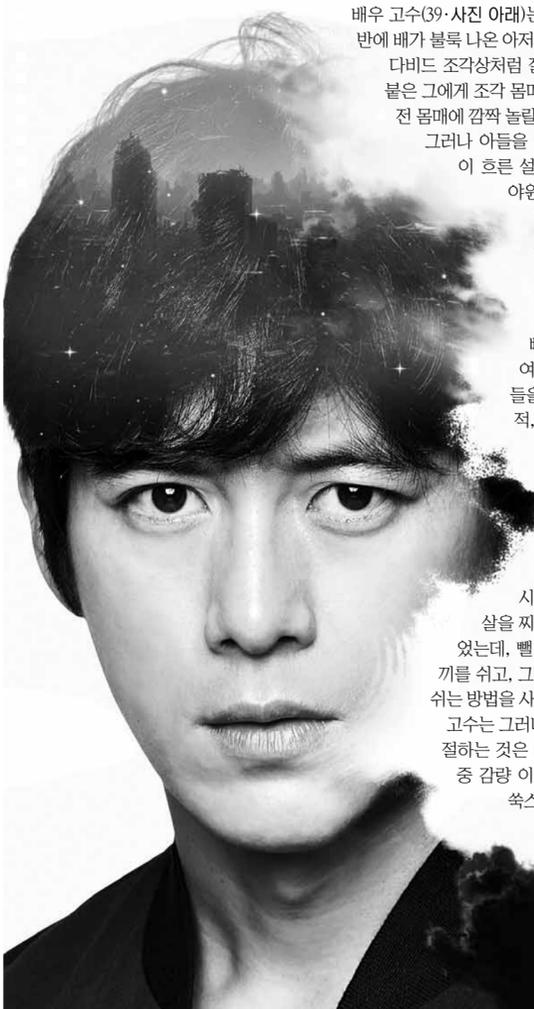


“자식 잃은 절박함 마음에 와닿았죠”

고수, 영화 ‘루시드 드림’ 긴박한 추격전 역할 위해 80kg대로 늘렸다 18kg 감량



배우 고수(39·사진 아래)는 영화 ‘루시드 드림’에서 초반에 배가 불룩 나온 아버지 몸매를 선보인다.

다비드 조각상처럼 잘 생겨 ‘고비드’라는 별명이 붙은 그에게 조각 몸매를 기대했던 관객이라면 반전 몸매에 깜짝 놀랄 법하다.

그러나 아들을 납치당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설정이 시작되면 고수는 바짝 아연 모습으로 나온다. 고수는

‘루시드 드림’을 위해 몸무게를 80kg 후반까지 늘렸다. 다시 17~18kg가량 감량했다고 했다.

고수는 “처음에는 보통 아빠들의 평균적인 몸매를 보여주려 했다”며 “나중에는 아들을 잃은 대호가 3년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며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체중을 뺐다”고 했다.

“제가 영화의 90%가량 등장하기 때문에 긴장감 감독님이 제게 살을 뺄 시간을 일주일 정도 주셨어요. 살을 찌울 때는 무조건 꾸역꾸역 먹었는데, 뺄 때는 한 끼 먹은 뒤에는 두 끼를 쉬고, 그다음에는 한 끼 먹고 세끼를 쉬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고수는 그러나 “캐릭터를 위해 체중을 조절하는 것은 배우로서 기본 자세”라며 체중 감량 이야기가 화제에 오르는 것을 속스러워했다.

고수는 그동안 영화 ‘덕혜옹주’(2016), ‘상의원’(2014), ‘집으로 가는 길’(2013), ‘백야행-하얀 어둠 속을 걷다’(2009)와 드라마 ‘옥중화’(2016), ‘황금의 제국’(2013) 등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해내며 연기파 배우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영화 ‘집으로 가는 길’에서는 아내를 찾으러 다니는 남편 역을, ‘루시드 드림’에서는 납치당한 아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버지역을 맡는 등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인물을 주로 연기했다. 2012년 결혼해 현재 아들과 딸을 둔 그이기에 가족을 잃은 아픔을 연기하는 소화가 남달랐을 법하다.

“제가 결혼하고 자녀를 뒀기 때문에 연기하는 데 도움이 될 측면은 있죠. 그러나 시나리오만으로도 몰입하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으니까요.”

고수는 전날 ‘루시드 드림’ 언론 시사회에서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함께 출연한 강혜정이 시사회 도중 고수에게 티슈를 건네줬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렇지, 절대 운 것은 아니다”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면서 “대호의 감정이 제게 잘 와닿았다”면서 “연기할 때도 아들을 잃은 처절한 감정을 기본으로 아들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과 진심이 관객에게 잘 전달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루시드 드림’은 납치된 아들을 조각공(루시드 드림)을 통해 찾는다라는 내용이다. 고수는 극 중 꿈속과 현실을 오가며 긴박한 추격전을 벌인다. 꿈 소재로 한 만큼, 그도 실제 악몽에 시달렸는지 궁금했다.

“신인 때는 인터뷰나 홍보를 앞두고 매번 악몽을 꿔요. 사실 제가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몇 해 전부터는 그런 꿈은 꾸지 않지만요.”

실제 만나본 고수는 굉장히 진중하고, 말투도 느린 편이었다. 모든 질문에 한 말 한 말 바느질을 하듯 신중하게 답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에yel 기간’이 지나자 말문도 트였다. 배우로서 계획을 묻는 말에는 긴 답변이 돌아왔다.

“저는 늘 배우야 한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찾아다니는 편입니다. 제 출연 분량을 떠나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죠. 연기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영화를 찍은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찍었으니, 관객들도 이렇게 느껴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주제넘은 일인니까요. 스크린에서 나오는 제 모습 그대로 관객들과 호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트와이스’ 세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낙낙’ 멜론·벅스 등 8개 음원 차트 석권

걸그룹 트와이스(사진)가 스페셜 앨범 ‘트와이스코스터 : 레인2’(TWICEcoaster : LANE2)로 음원차트 정상을 석권하며 4연타석 홈런을 쳤다.

20일 0시 공개된 이 앨범 타이틀곡 ‘낙낙’(knock knock)은 오전 8시 기준으로 멜론, 엠넷닷컴, 올레뮤직, 지니, 벅스, 네이버 뮤직, 소리바다, 몽키3뮤직 등 8개 차트 1위를 휩쓸었다.

이 앨범에는 ‘낙낙’과 ‘녹아오’ 등 신곡 2곡과 지난해 10월 발표한 세 번째 미니앨범 ‘트와이스코스터 : 레인 1’의 수록곡 7곡이 함께 수록됐다. 음원이 아닌 CD에는 EDM

(일렉트로닉댄스뮤직) 뮤직션 탁이 작업한 ‘티티’(TT)의 리믹스 버전이 보너스로 실렸다.

2015년 10월 데뷔한 트와이스는 석장의 미니앨범을 통해 ‘우아하게’와 ‘치어 업’(CHEER UP), ‘티티’를 모두 히트시키며 데뷔 1년여 만에 ‘대세’ 걸그룹으로 떠올랐다.

3곡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1억 뷰를 모두 돌파했으며 그중 ‘치어 업’은 1억 스트리밍을 기록했다. ‘티티’가 담긴 세 번째 앨범은 판매량 35만 장을 돌파해 지난해 걸그룹 최다 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

하숙집 딸들

박중훈 첫 손님… 짜장면 먹방 폭소

배우 박중훈(사진)이 지난주 첫 전파를 탄 KBS 2TV 화요 예능 프로그램 ‘하숙집 딸들’의 첫 게스트로 나섰다.

KBS는 20일 험난한 입주 테스트를 받는 박중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미리 공개했다. 사진 속 박중훈은 하숙집 주인 이미숙과 그녀의 딸들인 박시연, 장신영, 이다해, 윤소이와 함께 긴 젓가락으로 짜장면 먹기에 열중하고 있다.

출연진은 젓가락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짜장면을 온 얼굴로 받아내 폭소를 자아낸다. 특히 박중훈은 팔을 최대한 곧게 편 채 짜장면을 먹기 위해 혈안이 된 얼굴로 웃음을 자아낸다.

박중훈은 ‘하드코어한’ 짜장면 먹방(먹는 방송) 뿐만 아니라 가방까지 탈탈 털는 여배



우들의 ‘신상탈기’에는 식은땀도 흘렸다고 한다. 박중훈이 험난한 입주 테스트를 통과 하숙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숙집 딸들’은 팜프파말 안방마님 이미숙과 미모의 네 딸 박시연, 장신영, 이다해, 윤소이, 그리고 만난 고시생 박수홍과 이미숙의 남동생 이수근이 하숙집에서 벌이는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이다. 21일 밤 11시 10분 방송.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중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재나 불발)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TV블로그 꿈지랑 30 아침연속극 (아침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재) 55 감성애니 하루 2	00 하숙집 딸들 (재)	00 월화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재)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목 30 푸르기 탐구생활
12	00 KBS 뉴스 12	20 생생정보 스페셜 50 2017 스포로 동계 아시안게임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랑 55 세상발전 유레카 스페셜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유직토크쇼 가요1번지 55 TV쇼 진품명품 (재)		20 문화사색 (재)	55 닥터 365
2	55 방화특선 청소년 토크콘서트 드림고! Go!		05 내꺼야 풀록 30 푸르기 식사교실	00 2시, 뉴스브리핑 50 2017 스포로 동계아시안게임
3	45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MBC 뉴스 10 뚝? 뚝! 키즈쿨 55 응개 쇼나타 2	
4	00 4시 뉴스집중	30 영성앨범 산 (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 (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행전문록 남도에 살아리러다
7	00 KBS 뉴스7 35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랑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빛나라 은수	30 2017 스포로 동계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55 1대 100	50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기획 창 55 감성애니 하루 2	00 월화드라마 <화랑>	00 월화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00 월화드라마 <피고인>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	10 하숙집 딸들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0 책백개 (재)	35 동계 아시안게임 기획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프랑스 와인여행 - 샹파뉴>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이디 비그 07:30 로보카 폴리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덩동영 유치원1~3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09:00 방귀대장 뽕뽕이 09:15 출동! 슈퍼윙스 09:30 이암! 스페이스 정글 09:40 부모 <위대한 엄마>(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오삼 불고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크(재) 12:40 지식채널e 12:45 숨은 한국 찾기(재) 13:35 뷰티풀 코리아 <천개의 불상이 그린 산수화, 천불동 계곡> 13:40 출거운 수학 EBS MATH 13:50 그림을 그려요? 13:55 캐니멀	14:25 정글에서 살아남기(재)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레빗 15:20 아웅명명 귀여워(재) 15:35 오솔 상지2 15:45 코코몽 3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부릉부릉 브루미즈(재) 16:45 덩동영 유치원1~3(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4 19:00 소피 루비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20:40 다크 오울 <육류 가공 공장> 20:50 세계테마기행 15:35 오솔 상지2 - 김계 타버린 섬, 란사르데> 21:30 한국기행 <지리산 그 남자의 천국> 21:50 EBS 다크프린 <한국의 강 - 그들이 돌아오다> 22:45 리얼극장-행복 23:35 미스터리 휴먼 다크 <뒤편 달그는 남자의 산중일기>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1일(음 1월 25일 己卯)

子	48년생 다시 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지도 모르는 날이다. 60년생 길사는 별로 없었지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72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그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84년생 구채적이지만 없으면 뜬구름에 불과하다. 행운의 숫자 : 50, 16	午	42년생 진용을 정비하라. 54년생 지금은 잠자코 있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66년생 대인 접촉은 경계하는 것이 상책이다. 78년생 다시 한 번 점검하라. 90년생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가려서 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2, 20
丑	49년생 절차대로만 진행한다면 순조롭다. 61년생 고역이 따르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73년생 현재진행하고 있는 역할에 충실하되 보면 나머지는 자연히 정리된다. 85년생 참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행운의 숫자 : 58, 34	未	43년생 상태를 존중했을 때 자신도 인정받게 될 것이다. 55년생 실리 못지않게 관계도 중요한 법이다. 67년생 용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79년생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91년생 새 사치가 될 것이나 만족할 만하다. 행운의 숫자 : 31, 76
寅	50년생 중심에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구도이다. 62년생 착오로 인한 혼동의 피해가 상당할 수다. 74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뒤 털이 생기기 않을 것이다. 86년생 부딪치면 서로 손해이니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91, 74	申	44년생 당해 문제가 원활치 못하니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56년생 체계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탈이 나리라. 68년생 결단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가 보인다. 80년생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48, 42
卯	51년생 안정 궤도로 진입했다. 63년생 지나치다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하라. 75년생 부분으로써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87년생 역행한다면 재앙을 부르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69, 95	酉	45년생 단순하게 여긴다면 부정을 만나게 된다. 57년생 취약점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할 때이니라. 69년생 이심전심으로 인해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81년생 초기 정황이 전체적인 판국을 좌우하리라. 행운의 숫자 : 15, 98
辰	52년생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서 고민을 하게 되리라. 64년생 순간적인 격정을 생선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 76년생 서로 응하여 융합하게 되는 기쁨이 상당하다. 88년생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2, 11	戌	46년생 취할 수 없다면 아무리 아깝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상책이다. 58년생 여럿이 모여서 떠들썩한 상국이다. 70년생 솔직하게 대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82년생 흥성이 지고 길성이 떠오르는 기세이다. 행운의 숫자 : 53, 63
巳	53년생 재물과 인연이 깊은 날이니 다방면으로 노력하라. 65년생 바라보는 각도를 약간만 달리한다면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되어 있다. 77년생 재물이 저절로 찾아올 수도 있다. 89년생 잡자코 기다라라. 행운의 숫자 : 41, 27	亥	47년생 속명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겠다. 59년생 다 아는 길이라 하더라도 정확히 물어 보고 가자. 71년생 사방이 온통 오리무중이니 미혹에 빠질까 두렵다. 83년생 거창한 명분에 비해서 실제의 결과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3, 3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